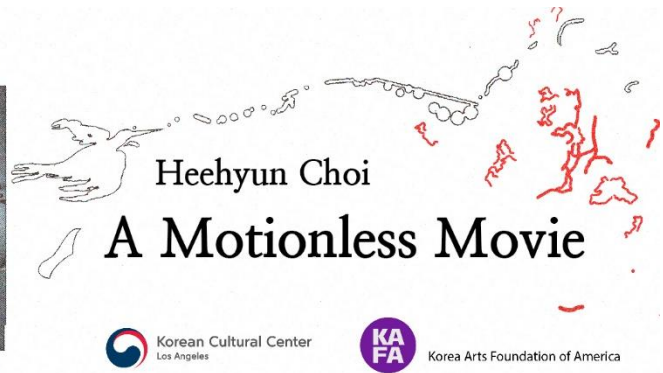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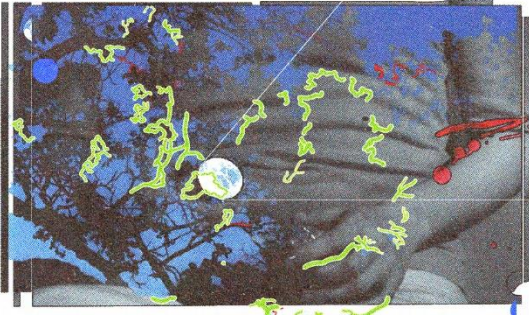


LA 한국문화원, 올해 KAFA 미술상 수상자 전시회 개최

- 10 월 23 일 ~ 11 월 14 일, 최희현의 전시 '움직이지 않는 영화' -

October 23 – November 14, 2025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Gallery



LA 한국문화원(원장 이해돈)은 KAFA 미술재단(회장 Gloria Lee(이동은))과 공동으로 오는 10 월 23 일부터 11 월 14 일까지 문화원 2 층 아트갤러리에서 《제 19 회 KAFA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 전시: 〈움직이지 않는 영화 (A Motionless Movi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AFA 미술재단(Korea Arts Foundation of America, KAFA)은 1989 년 미술 애호가들과 컬렉터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젊은 작가 발굴과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공모전 및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AFA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차년도 LA 한국문화원에서의 개인전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전시의 수상자인 최희현 작가는 한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상영관과 전시 공간을 넘나들며 실험영화를 제작한다. 16mm 와 Super 8mm 등 아날로그 필름으로 작업하며, 영화와 비디오 매체의 본질적

속성과 그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는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한 그는 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더 아트(CalArts)에서 필름앤비디오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전시 <움직이지 않는 영화 (A Motionless Movie)>는 네 점의 영상 작품과 자수 작업을 포함한 신작으로 구성된다. 전시와 동명의 에세이 필름 <움직이지 않는 영화>는 1920년대 조선의 신문 기사 「움직이지 않는 영화 (움직이지 않는 영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작품은 신문의 ‘가정·부인란’을 읽던 당시 여성들의 시선을 상상하며, 기사 속 미국 배우 클라라 보우의 흔적을 따라간다.

흑백 무성영화 <칠실(漆室)>은 영화 문법이 정립되기 이전, ‘카메라 옵스큐라’를 경험했을지도 모를 규방의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한다. 싱글채널 비디오 <널뛰기>와 3 채널 비디오 <함>은 카메라의 앞과 뒤, 프레임의 안과 밖, 그리고 이미지를 ‘만드는 자’와 ‘되는 자’의 경계를 흐리며 카메라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탐색한다. 또한 <연속사진> 연작에서는 사진과 영화의 역사 속에서 고정된 이미지를 해체하고, 전통 자수와 조각보 기법을 통해 과편화된 장면을 다시 잇는다.

이해돈 문화원장은 “이번 전시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제 19 회 KAFA 미술상 수상전으로, 전통적 영상언어와 수공예적 매체를 결합해 독창적인 감각 세계를 구축한 최희현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며,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펼쳐지는 젊은 예술가의 상상력과 실험적인 시도가 담긴 작품들을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새로운 사유와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loria Lee(이동은) KAFA 회장은 “KAFA 는 지난 35 년 동안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이번 전시가 차세대 작가들의 개성과 비전을 소개하고, 한인 미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개막식은 10 월 23 일(목) 오후 6 시 30 분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며, 전시는 11 월 14 일(금)까지 LA 한국문화원 2 층 아트갤러리에서 계속된다. /끝/

담당 부서	LA 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이해돈 (323-936-7141)
	문화사업담당	담당자	팀장 조혜민 (323-936-3014)



붙임 1	전시 개요
------	-------

□ 전시 개요

- ▶ 전시명 : 제 19 회 KAFA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 전시 "움직이지 않는 영화"
- ▶ 카파(KAFA) 미술상 수상자 : 최희현(Heehyun Choi)
- ▶ 전시기간 : 2025.10.23(목)~11.14(금) /개막식 : 2025.10.23 (목) 18:30~20:00
- ▶ 장 소 : LA 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최 : 카파미술재단(Korean Arts Foundation of America), LA 한국문화원
- ▶ 심사위원 : 버지니아 문(LACMA 한국미술 큐레이터), 자밀라 제임스(시카고 현대미술관 시니어 큐레이터), 파블로 호세 라미레즈(해머 뮤지엄 큐레이터)
- ▶ 전시문의 : LA 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KAFA 323-692-2005
- ▶ 전시장 개장 : 월-금 10:00 -17:00, 토 9:00-13:00
(*11.11(화)는 Veterans Day 로 휴무)



Korea Arts Foundation of America

The 19th Korea Arts Foundation of America Award Recipient Exhibition

A Motionless Movie

움직이지 않는 영화

Awardee **Heehyun Choi** 최희현



October 23 – November 14, 2025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Gallery
Opening Reception Thursday, October 23, 2025 6:30pm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Phone: 323-936-7141

www.kccla.org

A Motionless Movie 움직이지 않는 영화

Single channel video, 16mm and Super 8 to digital, color, sound, 25 min., 2025

1928 년 『동아일보』에는 인기 배우 클라라 보우가 주연한 할리우드 무성영화 <당신의 남자 (Get Your Man, 1927)>의 한 장면을 소개하는 짤막한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는 “움직이지 않는영화 (움직이지 않는 영화)”라는 역설적인 제목이 붙었다. 기사에 따르면, 영화 속에서 클라라 보우가 연기하는 인물은 파리의 밀랍인형 박물관에서 남자 주인공을 처음 만난다. 그런데 이 장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밀랍인형은 실제 마네킹이 아니라 수십 명의 엑스트라 배우들로, 그들은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카메라를 마주한다.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존재는 클라라 보우 한 사람뿐이다.

2 년 뒤, 클라라 보우는 도로시 아즈너 감독과 함께 그녀의 첫 유성영화 <와일드 파티 (The Wild Party, 1929)>를 찍는다. 도로시 아즈너는 클라라 보우가 동시 녹음을 하면서도 카메라 앞에서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낚싯대에 마이크를 매달아 오늘날 붐 마이크라고 불리는 장치를 고안하여 사용했다.



A Dark Room 칠실(漆室)

Single channel video, 16mm and Super 8 to digital, b&w, silent, 9 min. 51 sec., 2025

<칠실(漆室)>은 영화 문법이 정립되기 이전, 도구나 기계이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에 가까웠던 원시의 카메라를 경험한 이들의 관점을 상상하는 데서 시작한다. 캄캄한 방에 작은 구멍을 내 빛을 들이면 바깥 풍경의 상이 맺히는 원리, 즉 카메라 옵스큐라 (camera obscura, dark room)는 말 그대로 ‘어두운 방’을 뜻한다. 그리고 ‘어둡다’를 뜻하는 ‘옵스큐라’를 떼어낸 오늘날의 ‘카메라’라는 말은 곧 ‘방’을 뜻한다.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각자의 방 안에 어떤 그림을



가득 담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이 시기 동서양 문화권에서 카메라 옵스큐라는 회화를 현실에 더 가깝게 그릴 수 있도록 돕는 밑그림으로 쓰였다. 다산 정약용이 처음 카메라 옵스큐라를 경험한 뒤 쓴 「칠실관화설(漆室觀火說)」 또한 그 상(像)을 하나의 풍경화로 묘사한다.

<칠실(漆室)>은 같은 시기 카메라 옵스큐라를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혹은 정약용의 「칠실관화설」을 읽었을지도 모르는, 방 안의 한 여인을 상상한다. 그녀의 방 안에서 풍경화는 물 따르는 찻잔 속에, 보자기 안에, 바느질하는 이불 위에 이미 펼쳐져 있다.

The Wedding Chest 함

3-channel video, 16mm to digital, color, silent, 3 min. 30 sec. loop, 2025

한 중년의 여인이 결혼을 앞둔 어린 여인에게 준비한 선물이 카메라와 마이크라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나의 어머니가 결혼할 때 친할머니는 함을 준비했다. 커다란 붉은 보따리 안에는 신랑의 어머니가 신부 측 가족과 친척을 위해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보자기에 곱게 싼 선물들이 담겨있었다. 할머니는 부모님의 결혼식이 끝난 뒤 붉은색, 노란색, 옥색, 푸른색의 보자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관해두었고, 서른 해가 지나 내게 주며 선물을 보자기로 싸는 법을 알려주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을 거친 보자기들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싸며 영화 만드는 사람과 영화 보는 사람 사이에 오가는 선물을 마련한다.



Neolttwigi 날뛰기

Single channel video, Super 8 to digital, color, silent,
3 min. loop, 2025

한 여인이 하늘 높이 올라 담장 밖을 보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선 여인이 자세를 낮추고 널을 힘껏 밟는다. 곧바로 역할이 바뀌고, 높이 올라간 이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며, 아래에 있던 이는 하늘 높이 뜬다. 그리고 다시 역할을 바꾸어 반복한다. 널 중앙에는 세 번째 사람이 올라타 두 사람을 위해 중심을 잡아주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이 널을 뛰는 박자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날뛰기>의 카메라는 날이기도 하고, 가운데에서 노래를 부르는 세 번째 여인이기도 하다.

한 공간에 카메라가 놓이는 순간, 세상은 명확하게 둘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카메라 앞과 뒤, 프레임 안과 밖, 보는 쪽과 보여지는 쪽,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들과 이미지가 되는 이들, 영화를 만드는 이들과 영화 속 장면으로 만들어지는 이들. 그 누구도 영원히 하늘 위에 떠있지도, 영원히 땅에 머무르지도 않는 날뛰기의 형상으로부터, 카메라로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두 사람 모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카메라의 앞뒤로 두 사람이 널을 뜬다. 찍는 사람이 찍히는 사람이 되고, 찍히던 사람이 찍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날뛰기를 지켜보는 세 번째 여인에게로 카메라를 돌린다.

